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1월 제251호 http://cnmhs.net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신축년 흰소의 해, 희망의 빛이 온누리에 퍼진다"

[칼럼] 충기인이여! 다섯 마리 소(좋소, 괜찮소, 웃소, 걷소, 고맙소) 키웁시다

신축년 새해 모교 교정에 상서로운 눈이 쌓인 가운데 태양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사진은 1월 7일 모교 전경)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辛丑年)이 펼쳐졌습니다. 신축년의 신(辛)은 흰색, 축(丑)은 소를 의미해 흰 소띠 해로 불립니다. 예로부터 소는 힘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여유, 평화, 의지, 의로움, 용맹함, 성실함, 충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축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그토록 바라던 일상회복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기인들은 지난 경자년에 코로나로 세상이 온통 난리 속임에도 중단 없이 동문회보 설송소식을 발간하여 지난해 12월 마침내 250호 발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전국의 어느 동문회도 이루어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희망의 소를 키우자고 제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른 어느 도시의 청소차량은 "집집마다 다섯 마리 소만 키우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집집마다 소 5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시도 행복합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 하소, 깨끗이 우리 동네 청소"라는 기발 난 내용이 신축년과 맞물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는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제발 밥만 주소."등 다섯 마리 소를 집에서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에 '신축년 희망을 갖자'는 특집을 만들며 우리 충기인들에게 올해 다섯 마리의 소를 키우자고 제의합니다.

우선 첫째로 '좋소'를 키웁시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일단은 인정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도 긍정 마인드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다 좋다 하면 좋아집니다. 반대로 삐딱한 성격으로 뭐든지 부정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괜찮소'를 키웁시다. 상대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겨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웃소'를 키워야겠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겨 화를 내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독불장군이 됩니다. 신축년에는 화내지 말고 웃어버립시다.

넷째로는 '걷소'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6천보 이상을 걷고, 햇볕을 쬐며 걸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가용 운전에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걷기 등 운동을 소홀히 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소'를 키웁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인대(堪忍待: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사는 세상)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충기인들이여! 소처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참고 인내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신축년을 만들어갑시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87차 총동문이사회 서면으로 개최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해 2월에 개최 예정인 제87차 총동문이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대면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키로 결정하여, 동문 이사 및 임원, 각 모임의 단체장님들께 서면으로 문서를 발송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총동문회사무실(전화 252-5656)로 2월 26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흰소의 해, 참을성 있게 견디어 일상을 회복합시다”

[박대용 총동문회장 신년사] 올해 모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발전 계기

친애하는 동문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흰소의 해인 새해 동문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축년인 올해는 소의 끈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희망의 해입니다. 소는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어떠한 난관도 묵묵히 극복해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교는 개교 58년을 맞아 올해 1월 15일 열린 56회 졸업식에서 334명의 졸업생으로 4만 명에 한 명이 모자란 3만3천999명의 동문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배출한 것에 걸맞게 이제는 한 단계 향상된 모교와 총동문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동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셔야 4만 명의 동문에 걸 맞는 총동문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동참하여주신 역대 회장님과 각 지역, 회수, 직장 동문 회장님과 대의원을 비롯한 동문 선후배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모교발전과 재학생 학력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황의만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동문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역대회장님께서 모교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대내, 외적으로 충기공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교는 특히 올해 가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노후 건물에 대한 시설 보완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기숙사동 건물 석면 철거작업과 리모델링에 이어 강당 등 기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올 4월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숙사동에 위치한 충기역사관이 가을 전국기능경기전에 일부나마 보완이 시급하지만 예산이 없어 문제입니다.

우리 모교가 앞으로 당면한 심각

한 문제는 후배들의 입학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생 인구수의 급감에다가 특성화 고교 경시풍조 만연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공고 등 다른 특성화고교에서 선배들이 취업에 적극 힘쓰는 등 공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모교 없는 졸업생 동문은 없습니다. 우리 총동문회 집행부는 모교발전이 곧 동문회 발전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후배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일상을 회복하고 지난해와 달리 총동문회 가을 행사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더욱 화합하고 함께 뭉쳐서 작은 목소리도 함께 고민하고 기뻐하면서 100년을 향해 내실을 다져가는 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충기총동문회가 계속 전통을 이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20회, 30회 이하 동문회 구축에 정성을 기울어야 합니다. 동문회 행사에 선후배 동문들이 따뜻한 동행자가 되시고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뚝심 있는 흰 소의 신축년에 모든 동문들에게 행운이 깃드시고 사업과 직장 운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총동문회장 박 대 용 올림

“코로나 종식되면 바닷가 야유회 계획”

김월배 광산과동문회장 (8회)

동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해 체육대회를 비롯해 동문회 소모임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해 동문 선후배를 뵙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모교에 다닐 때 가장 먼저 생긴 학과이름으로 인해 이른바 “광방자 전기화(광산과 방직과 자동차과 전기과 기계과 화공과)”가 불릴 때마다 광산과 동문들은 최초라는 기분으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무상하여 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광산과는 1977년 1월 10일 12회 졸업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8일 저녁 대전 중구 선화동 장수갈비에서 광산과동문회를 창립하여 매년 6회 모임을 홀수 달 둘째 주 화요일에 25명의 정회원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비도 수천만 원이나 모였고 막내

기수인 12회 김종선 동문이 16년째 만년 막내 총무를 맡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광산과 선배님을 모시고 정기모임에는 장어, 오리고기, 염소수육, 방어 등 제철보양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면서 봄, 가을 2회 산, 바다 관광지로 야유회를 가서 맛있는 회, 유람선 관광을 하며 우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서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의 터널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그리운 일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광산과 동문회는 바다로 야유회를 떠납니다. 광산과동문회는 영원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과동문회와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투자하기를 ”

윤창석 방직과동문회장 (12회)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을 과거의 기억 속에 남겨두고, 희망으로 설레는 2021년 신축년의 뜨거운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56회 후배 졸업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젊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중년에는 ‘잘 계시죠’, 노년에는 ‘별고 없으시죠?’라고 인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주변은 물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중장년층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부지런해야 했고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이 절실했건만, 내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탓에 부지런함도 건강도 챙기지 못한 채 지나온 날들에 회한만이 남습니다.

최근에 동창친구로부터 일명 조탁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탁법이란? 조탁(鳥새 조, 琢쫄 탁)은 새가 모이를 쪼듯이 양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 전체를 톡톡 두드리는 방법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자극할 수 있고 잠자던 경락

을 흔들어 주니 생기가 들게 되는 좋은 전신건강 운동법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전체적인 몸의 활기를 주면서 병약해진 몸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일까요? 나만 그런 것일까요? 지금껏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시간에 더 이상의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만 후회한다고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제쳐놓은 관심사를 다시 찾아보거나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에 뛰어드는 용기도 가져보면서 대학과 지자체의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시도해 보지도 않거나 포기해 버리지 말고, 스스로를 가장 많이 칭찬하고 믿어주고 또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따뜻했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에는 휘파람 길게 불고 견디면 곧 봄이 오리라”

〈심상정 총동문회 고문 덕담〉 일상 회복 동문회 행사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졸업생으로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1999년에 처음으로 동문회보를 발행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러 창간 250호를 넘어 이번 달에 251호를 발행한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게다가 1회 선배라는 이유로 신축년 덕담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동문 여러분, 지금 시기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경자년 벽두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구인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와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총동문회 행사를 비롯해 모교의 각종 모임도 열리지 못하고, 모교 후배들의 56회 졸업식도 부모와 지인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간략하게 개최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년 새해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백신도 곧 보급된다고 하니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복구하리라고 믿습니다.

신축년(辛丑年)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신(辛)이 백색, 축(丑)이 소를 의미하는 ‘흰 소의 해’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는 오랜 과거부터 한반도에서 농경생활을 하며 민족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새해 신축년에는 소를 활용하여 “행복한 일로 가득하소”, “신축년 부자 되소”, “새해에새해 복 많이 받으소”등 재치있는 인사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해 동양학을 공부하는 후배로부터 감인대(堪忍待:견디고 참으며 기다려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라는 제목의 시 한편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생이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 데 바로 한자로 번역하면 ‘감인대’라는 것입니다.

시의 전문은 “堪耐世事君應知(감내세사군응지) 忍堅不拔眞吾宜(인견불발진오의) 長嘯暫歎壚頭歌(장소잠탄노두가) 宵天寒雪滿巷時(소천한설만항시)”로 해석해보면 “세상살이는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는 응당히 알아라. 굳건히 참아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 길게 휘파람 불고 잠시 탄식하며 목로에서 노래 불러라. 밤하늘 찬 눈이 골목에 가득할 때는(경거망동하지 말고)”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의 매우 추운 겨울에 눈이 엄청 오는데 경거망동하여 거리를 배회하면 얼어 죽는 거와 같습니다.

혹독한 시기의 추운 겨울은 곧 지나고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아무쪼록 신축년에는 소처럼 꿋꿋하게 버티어 내어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동문회 행사와 소모임에서 반갑게 만나 회포를 풀겠다는 희망을 가집시다.

“타성 벗어나 변화 모색해야 길이 보인다”

이재진 자동차과동문회장(7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기 동문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산업의 역군을 꿈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한해를 접하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모교 자동차과에 입학하면서 자동차 관련업과 인연을 맺은 우리 동문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모교에서는 자동차가 없어져 아쉽지만 졸업한 자동차 동문 선후배들은 끈끈한 우정을 여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모교 자동차과를 나온 동문들은 우수숙련기술자로 큰 자부심을 느낌은 물론 후배들에게 숙련기술을 전수해야한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젊은 후배들이 자동차정비가 사양산업이라며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정비업계가 비전이 없는 것만은 아

닙니다.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고 틈새시장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갈수록 모듈화, 첨단화되고 있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꼭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생각을 가져야만 새로운 아이템도 보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 신축년에는 소망하고 계시는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총동문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동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견디자”

이정식 전기과동문회장(8회)

보고 싶은 동문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혹독한 장마로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처음 겪는 시련은 우리 사회 곳곳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전기과 동문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 이사회, 정기총회 등을 예정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과 경제 문제 등 여러모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면 새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 힘을 내십

시오! 살다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 여기서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 잠시 쉬어가자고 할 때가 더욱 힘을 내어 같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합심하여 뭉치고 견뎌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동문들은 다시 각종 모임에서 얼굴을 맞대고 환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기과 동문회도 올해 전기과단합대회 겸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을 지키시어 강령하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만나는 날 반갑게 얼싸안고 맘껏 악수하고 싶습니다.

신축년 총동문회 행사 예정

※ 3월 중 → 제36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 5월 중 → 충기한마음등반대회
※10월 중 →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 11월 중 →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 기타 → 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야유회

"흰 소의 뜩심으로 전국고교동창골프 우승컵 쟁취하겠다"

모교동문골프팀 지난해 3위 500만원 상금 모교에 장학금 전달

동문골프팀의 허영준 주장이 1월 5일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대회 괄목할 성적을 거둔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상주블루원골프장의 아름다운 전경이 올해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3위를 차지한 후 골프장에서 응원 온 동문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총동문회 골프팀(단장 전종현)은 지난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열린 2020 키움증권배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에서 공동 3위의 성적을 올려 모교후배 장학금 500만원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키움증권에서 500만원이 입금됨에 따라 모교 동문회 골프팀 허영준 주장이 1월 5일 모교를 방문하여 황의만 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열린 제16회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에서 모교팀은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전하여 전종현 단장의 헌신아래 허영준 주장과 차서백, 이문휘 선수의 활약으로 괄목할 성적을 거둔 것이다.

모교팀은 숱한 강호를 꺾고 지난해 11월 3일 열린 2020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통합 준결승전에서 강호 김천 성의고에게 져 공동 3위에 그쳤다.

김천 성의고는 11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기계공고를 꺾고 제16회 대회에서 우승했다.

모교 골프팀은 재작년 고교동창골프대회에 출전하여 하반기대회 8강까지 올랐고, 지난해 상반기 대회에 출전하여 통합 4강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모교팀은 전종현 단장(12회)의 집념 아래 똘똘 뭉쳐 주장 허영준(25회)선수의 결정적인 활약과 '행운의 사나이' 이문휘(27회) 선수의 선전에다가 지난해 새로 합류한 차서백(전 이름 차기천. 22회) 선수가 나름대로 몫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04년 첫 방송 이래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고교동창골프최강전은 모교의 명예를 건 팀 대항전으로서 고교 동문 간의 화합과 승부를 그린 SBS골프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소문이 나 있다.

지난해 대회에도 전국 156개 고등학교 동문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쳐 아마골프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

모교 동문골프팀은 올 3월에 열릴 예정인 제17회 대회 상반기 예선대회 출전을 목표로 개인 연습에 치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험 부족으로 김천 성의고에 패배한 지난해 경험을 교훈삼아 보강에 나서고 있다.

허영준 주장은 "성의고와의 경기 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진 것이 아쉬웠다"며 "방심하지 않고 경험을 살려 올해 대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종현 단장은 "충기인의 명예를 걸고 우승할 때 까지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신축년에 행운의 흰 소처럼 뚝심 있게 도전하여 우승컵을 가져 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꽃피는 봄이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에 다시 도전하는 동문골프팀의 선전을 응원한다.

–신도성 편집위원–

"올해 화공과 동문회 행사와 사은회 개최"

이원승 화공과동문회장 (8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소의 해인만큼 우리 동문들 모두 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한 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에는 각과별 동문회와 지역 동문회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모교 총동문회의 행사가 활성화되어, 코로나로 잠시 단절되었던 모교 동문들의 끈끈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통상 "끈끈한 인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공과 동문들은 화공과 출신답게, 바로 "화학적 결합"으로 끈끈한 인연을 지속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는 화공과 은사님들을 모두 모시고 계룡스파텔에서 뜻깊은 사은회를 하면서 화공과 동문회를 발족시켰고, 지금도 각 기별로 은사님을 모시고 사은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 화공과 동문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뜻있는 화공과 동문들의 요청에 의해 제가 2년 전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직 재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화공과 동문회 밴드를 개설하여 각 기별 회장들의 도움을 받아 70여 명의 동문들을 밴드에 가입시키고 온라인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새해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한 화공과 동문회 행사를 사은회와 함께 추진하면서, 신임 화공과 동문회 회장을 선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화공과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모교 총동문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탕으로 정직하게 살자 좌우명으로 매사 노력"

최철균 동문(19회) 순경으로 경찰 투신 31년만에 총경 승진

최철균 동문(19회.전기과)이 충남경찰청의 1월 7일 인사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 최철균 동문은 충남경찰청 감사계장을 맡고 있는데 본청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선 경찰서장으로 나갈 전망이다.

최철균 동문은 순경 공채 15회 출신(1989년 투신)으로 경위 시절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종이에 묻은 지문을 식별하는 약품을 개발, 10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절감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되기도 했다. 또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강력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는 등 형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기대를 모았다. 최 동문은 순경에서 시작하여 총경에 오르기까지 충남청 과학수사계장, 서산서 수사과장, 천안동남서 형사과장, 충남청 경무계장과 감찰계장, 감사계장을 지냈다.

최철균 동문은 대전 출생으로 성남초등학교와 보문중을 나와 충남

기계공고 전기과에 입학하여 1984년 졸업했다. 군대를 복무한 후 고교시절부터 꿈꾸던 경찰에 도전하여 1989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했다.

최 동문은 평소 온화한 성품에 끈질긴 노력형으로 주경야독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거쳐 한남대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해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 최철균 동문에 대한 모교 동문들의 기대도 많았다. 인사 철마다 총경승진을 기다리던 끝에 행운의 신축년 정초에 낭보를 받은 동문들은 자기 일처럼

최철균 동문의 승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모교 정문에 걸려 있다.

기뻐했다.

최철균 동문은 "그동안 바쁜 경찰 업무로 인해 모교 동문회 행사 등에 소홀히 하여 죄송스러웠다"며 "동문 선후배님들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고 동문 행사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동문은 또한 모교 후배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며 "경찰에 꿈이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자문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철균 동문은 평소 '예의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살자'를 좌우명 삼아 성실하게 일과 사람을 대하고 있어 주위에서 훈남으로 여기고 있다.

아무쪼록 최철균 동문이 총경으로서의 멋진 경찰생활을 마무리하기를 충기 동문들은 기대해본다.

–신도성 편집위원–

"자식 잘 되는 것 인생에서 큰 기쁨"

육정관 동문 장남 입법 · 행정고시 2개 합격 경사

육정관 동문과 장남 건우군이 서울대 임구에서 포즈를 취했다.

살면서 승진하거나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동문 자식들의 혼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육정관 동문(15회. 화공과)의 장남 건우군(서울대 경제학과 4년 재학중)이 지난달에 발표한 2개의 국가고시<36회 입법고시(재경직), 5급공개채용(행정고시,재경직)>에 동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건우 군은 아버지 육정관씨(현재 주식회사 승일 상무이사)와 교육자인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모범생으로 성장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건우 군의 동생도 현재 안양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미국 유전자학회지에 소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5만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물려준다고 한다. 그 5만 종류의 유전자 안에는 부모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선행, 거짓말, 기쁨, 슬픔 같은 감정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전자가 후손들에게 옮겨져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부모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유전자가 후손에게 옮겨가서 씨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아 좋은 유전자를 많이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녀교육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평소에 온화한 인품으로 경인지역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육정관 동문은 기자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며 "자식자랑은 팔불출이라 부끄럽다"고 말했다.

코로나백신 접종 알아야 할 상식 10가지

미국CNN 보도, 방역수칙 계속 지켜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2월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후로 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CNN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알아야할 상식 10가지를 정리했다.

◆ 해야 할 일

1. 내 순서가 되면 백신을 맞는다 =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을 차례와 시기를 미리 확인할 것.
2. 코로나를 앓았던 사람도 접종한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감염된 적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백신을 맞기 전에 의사와 상담할 것. 코로나 치료과정에서 단일클론 항체나 회복 혈장을 받았다면 치료 후 90일이 지난 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CDC측의 조언.
3. 코로나 후유증 지속시에도 백신을 맞는다 =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뒤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피로,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한다. 백신 연구자인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의 피터 호테즈 교수는 "(코로나 증세의) 지속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주사를 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동이 아니라, 장기간의 염증 반응때문이다.
4. 알레르기나 과거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사전에 알려준다 = 드물지만 백신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들이 있다. 접종 현장의 간호사에게 과거 다른 주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릴 것.
5. 2차 접종 시기를 지킨다 = 기대하는 백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이 필요하다. 호테즈 교수는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1차 접종에서 항체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차 백신만으로 충분한 면역반응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CDC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21일 간격으로, 모더나는 1차 접종 후 28일 후 투여된다. 그리고 2차 접종을 앞당기지 말 것.

– 6면으로 기사 계속 –

“코로나19로 비대면 모교 56회 졸업식 344명 졸업”

졸업생 총수 4만명에서 1명 모자라, 교실에서 비대면 방송으로 진행

외부 사람을 차단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비대면 졸업식이 열렸다.

가족과 지인들의 교내 입장을 못하고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예년의 풍성한 졸업식 모습은 사라지고 꽃다발 판매도 시들하다.

총동문회 졸업 축하 화환이 본관건물 현관에 유일하게 놓여 있다.

모교 56회 졸업식이 1월 15일 오전 10시 신종코로나-19로 인하여 사상초유로 교실에 앉아 교내 방송 영상 비대면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56회 344명의 졸업생으로 모교 졸업생은 모두 33,999명이 되었다.

이날 코로나로 인하여 교문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학부모님들과 지인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졸업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교내 방송실에 특별히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축사, 교가제창, 폐식사 순으로 이어졌다. 졸업식은 외부인사 총동문회장 및 임원, 운영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교직원들만 참여하여 예전에 없던 모습으로 진행되어 아쉬웠다.

56회 졸업생은 CNC선반과 50명, CNC밀링과 48명, 산업설비과 47명, 금형과(금형제작과정)48명, 금형과(금형설계과정)26명, 응용소재과 20명, 전기과 54명, 전자기계과 51명 총 344명으로 12월 31일 기준 철도공사 등 83명이 취업했으며 한양대 1명, 충남대 4명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166명 등 총 185명이 진학하였다.

이날 영예의 교육감상은 전자기계과 이동주, 총동문회장상은 금형과 이동환군이 수상하였다. 이밖에 대전광역시장상에 산업설비과 최선우 군이 수상하는 등 많은 외부상이 수여되었다.

졸업장은 산업설비과 오근호 등 344명, 교과우수상은 전기과 차해성 등 29명등 다수의 교내상이 수상되었다. 거리두기 때문에 단체로 졸업사진도 제대로 못 찍는 아쉬움을 달래며 졸업식은 담임과 급우들과 교실에서 쓸쓸히 마쳤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졸업식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기원한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코로나로 늦어진 겨울방학 3월 2일 개학

42일 동안 건강과 공부 잘 활용해야

코로나로 늦어진 방학이 1월 15일 졸업식을 끝으로 42일간의 방학에 돌입했다.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내면과 자아실현 미진한 학습 보충 등 일상화 되어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함과 철저한 위생관념으로 방학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하겠다.

2020학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격주로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에 참가하는 이중적인 생활과 교실에서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온도측정, 손세정, 식사시간 띄어 앉아 먹기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지나갔다.

2021학년도에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활기차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를 모두 바란다. 이번 겨울방학은 학교의 일체 행사가 없는 방학이 될 전망이다.

– 5면에서 기사 계속 –

6. 백신접종 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 = CDC에 의하면 백신접종 후에도 바이러스의 조용한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백신을 맞았다 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만 한다.

◆ 하면 안 되는 일

7. 잘못된 정보때문에 판단력을 흐리지 말 것 = 소셜 미디어에는 코로나 및 예방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가득하다. 백신에 의구심이 있다면,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신뢰받는 기관의 정보를 찾아볼 것. 백신에 대한 일반적 반응으로 주사 부위에서 쓰라림이나 붓기가 나타날 수 있다. 2차 접종 후에는 발열, 피로, 두통, 오한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8. 코로나를 앓는 상태로 백신을 맞지 말 것 = 노스웨스턴대 감염병 및 장기이식학과의 마이클 이슨 교수는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증상과 격리기간이 지나기 전에 백신접종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백신접종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의료진에게 병을 옮기지 말라는 당부이다.
9. 코로나 백신접종 후 14일 이내에 다른 백신을 맞지 말 것 = CDC는 독감과 대상포진을 비롯해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 전후해 최소한 2주일의 기간을 두고 접종할 것을 권한다.
10. 접종 직후 운전하지 말 것 = 예방접종을 받고 약 15분 뒤 운전하는 것이 좋다. 과거 심한 주사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운전해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30분 정도 기다렸다 출발할 것. 어지러움이나 심한 현기증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입 현황

기간 : 2020년 12월 22일 ~ 21년 1월 26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자	1	정성택	20,000	광	8	김영준	20,000	방	12	윤창석	10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21	황희원	40,000
방	2	백재식	2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2	정찬목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기	23	강전영	20,000
전	3	김용호	2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13	김익수	50,000	기	16	이영훈	20,000	기	23	고승미	50,000
자	3	민석식	120,000	자	9	최재일	20,000	기	13	김형선	50,000	기	16	이은찬	20,000	기	24	가재훈	20,000
전	3	염진영	20,000	기	9	홍성헌	20,000	기	13	박상영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26	전준구	20,000
방	3	오장국	20,000	전	10	곽용섭	20,000	기	13	오광진	50,000	기	16	이진구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광	10	이기성	50,000	화	13	유병돈	200,000	전	16	장보환	40,000	기	35	이민훈	20,000
자	4	남 득	20,000	전	10	최영관	20,000	기	14	방명철	20,000	기	16	조성민	1,000,000	단체		17회동문회	300,000
전	4	한봉석	20,000	자	10	홍성주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6	조성서	100,000				
방	5	라길찬	20,000	전	11	김현수	10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17	김원근	20,000				
광	5	윤석용	20,000	전	11	남상천	20,000	기	15	박찬영	20,000	기	17	김종수	100,000				
광	7	윤제복	20,000	방	11	박영석	50,000	기	15	이명기	20,000	기	20	여명찬	50,000				
광	7	이동승	20,000	전	11	박진혁	20,000	기	16	남경윤	50,000	기	20	오철안	20,000				
자	7	이재진	50,000	기	12	고인환	20,000	전	16	성기일	20,000	기	20	윤홍근	50,000				
전	7	차연수	20,000	기	12	서동진	20,000	기	16	윤석길	40,000	기	21	김태호	100,000				

회보 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200,000
기	18	진춘식	100,000

"신축년 새해 모교에 상서러운 눈 펄펄내렸다."

모교 본관에 눈이 내리고 있다. 1월 18일 오전.

모교 직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설국으로 변한 운동장

정문 옆에 남은 8그루 설송나무

조국근대화 기술인의 탑

호국영웅동산 모습.

방학 중인 모교 운동장을 한 주민이 걷고 있다.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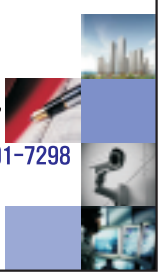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 (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禎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UMB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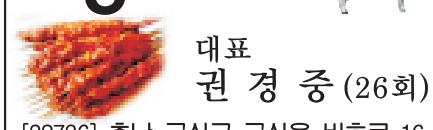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기 동문 여러분 힘내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 총동문회 임원 일동 -